

安錫傲의 散文 批評 特徵과 散文 教育으로서의 活用性

윤 지 훈 *

<目次>

- | | |
|-----------------------|-----------------------|
| I. 序論 | III. 散文 教育으로서의 活用 可能性 |
| II. 安錫傲의 散文 批評 特徵과 成果 | IV. 結論 |

<국문 초록>

본고는 안석경이 남긴 여러 성과들 가운데 『삼교예학록』 소재 산문 비평에 주목하여 비평의 특징과 산문 교육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삼교예학록』에 수록되어 있는 안석경의 산문 비평은 글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락 구성의 방법, 즉 편장 구성의 일관성과 연계성, 엄정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 방식은 자구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작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작품의 주제와 지은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효과적이란 점에서 한문 산문 교육뿐 아니라 글쓰기 교육에서도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안석경, 산문 비평, 산문 교육, 『삼교예학록』, 글쓰기 교육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singlesw@kice.re.kr

I. 序論

雪橋 安錫傲(1718~1774)은 조선후기 農巖系 문인의 한 사람으로, 『雪橋漫錄』의 저자이자 『雪橋藝學錄』과 『識聞』 등의 걸출한 비평작품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일생을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처사로서 삶을 살아가며 저술 활동과 문장 학습에 매진하였다. 그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시속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옹골이 지키고자 했던 그의 介潔하고 剛直한 성품이 한 몫을 하였다.

안석경의 삶은 부친인 悔窩 安重觀(1683~1752)의 행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가 생애 전반기를 부친의 任所인 서울·홍천·제천·원주 등지에서 보낸 것도 그러하거니와, 부친이 세상을 떠난 1752년을 기점으로 과거시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강원도 횡성의 삼교로 은거하여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도 그러하다.¹⁾

특히 그의 학문은 부친에게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안중관이 저술 활동을 할 때 항상 옆에서 시중을 들며 저술 과정과 그 결과물을 목도하였으며, 부친이 충주 가흥에서 거주하며 강학 활동을 펼칠 때에도 곁에서 강학 활동을 도왔다.²⁾ 그 결과 안석경은 20세를 전후하여 시와 문장에 상당한 성취를 보이게 되었고³⁾, 『經緯約林』·『文宗』·『文府琬琰』·『我東三家文抄』·『散筆』 등의 비평선집을 남긴 부친의 학문

1) 이명학, 「삼교만록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pp.9-17.

2) 安錫傲, 『雪橋藝學錄』天, 「藝學錄自序」, “先大人夙講經史百氏之書, 深明大道, 純就正學, 而炯然有四海之意, 既通均濟之務, 顧世不可與有爲. 中歲林居, 老於隱約, 用文墨自宣, 而晚生有來學, 量其所及, 未嘗不力言之, 近或越月, 久或逾歲, 其去亦未嘗援止. 在於不肖孤旁侍早夜, 受業三十餘年.”

3) 安錫任, 『雪橋年譜』, 「行狀」, “悔窩先生著文章, 每侍側, 觀其卒篇. 十五六而識慮已周, 志行可觀, 屹然有巨人氣像. 弱冠而詩幾成, 文亦有作者氣. 從悔窩先生于漢城, 遊於先生者, 多才雋, 皆伏公材器之大藝學之博, 槎川李公秉淵竹里金公相履, 尤奇之.”

적 성과⁴⁾를 계승할 수 있었다.

본고는 안석경이 남긴 여러 성과들 가운데 『삼교예학록』 소재 산문 비평에 주목하여 비평의 특징과 산문 교육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고가 안석경의 산문 비평을 산문 교육과 연계해서 살펴 보려는 이유는 『삼교예학록』이 부친인 안중관으로부터 강학 받은 내용을 기록·정리한 비평집이므로 과거 문인들의 산문 교육 방식을 엿볼 수 있거니와, 그 비평이 대체로 주제파악, 편장의 배치 및 자구운용의 양상, 결말의 구성 방식 등 작문 시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고가 안석경을 위시한 선대 문인들이 남긴 한문 전적의 가치를 새롭게 규명하고, 중등 교육에서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II. 安錫傲의 散文 批評 特徵과 成果⁵⁾

글은 사전적으로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을 의미하므로⁶⁾, 글에는 작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뜻이나 생각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과거의 문인들이 글을 두고 ‘載道之器’ 혹은 ‘貫道之器’라고 표현한 것도 글이 지니는 의미전달의 속성을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글을 짓거나 감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글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파악해야 한다.

4) 윤지훈, 「회와 안중관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15, 우리한문학회, 2006, pp.317-342.

5) 본 장은 윤지훈의 「18세기 농암계 문인들의 문학론과 비평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및 「삼교예학록을 통해 본 안석경의 산문비평과 고문작법」(『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의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참조.

안석경이 『삼교예학록』에서 역대 산문 작품을 대상으로 전개한 비평도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의 비평은 고문이 서두에 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장이나 어구를 배치하는 두괄식의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 대상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하의 서술이 주제와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개별 작품을 분석하면서 綱領, 宗旨, 根蒂, 攄腦, 頭腦 등의 평어를 사용하여 글의 주제이자 글의 전체 구조를 관장하는 脈絡을 파악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것이 이러한 그의 태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論佛骨表」는 ‘伏以佛者夷狄之一法耳。自後漢時流入中國，上古未嘗有’라는 세 구절이 모두 綱領이 된다. ‘昔者黃帝’부터 ‘非因事佛而致然也’까지가 한 大節이 되니, ‘上古未嘗有’의 구절을 이어받아 부연 설명한 것이다. ‘漢明帝時’부터 ‘傳笑四方，非細事’까지가 한 대절이 되는데, ‘後漢時流入中國’의 구절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夫佛本夷狄之一法’이하가 한 대절이 되는데, ‘夷狄之一法’이란 구절과 호응된다. 體段은 이와 같지만, 命脈은 실제로 ‘佛者夷狄之一法’이란 구절에 있다. 그러므로 옛 盛王 때에 불교가 없었지만 무병장수 할 수 있었고, 漢明帝 이후로는 불교를 섬겼음에도 禍亂이 발생하였으니, 오늘날 또한 배척하고 끊어버려야지 그들로 하여금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편 첫머리에 ‘불교를 이적의 범입’을, 다음으로 ‘후한 때 유입됐음’을, 또 그 다음으로 ‘상고에는 있지 않았음’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서 부연 설명할 때에는 이와 순서를 바꾸어 서술하고 있으니, 이는 撰製의 지극한 법이다.7)

7) 安錫徹, 『雪橋藝學錄』 人, 「韓文摘解」, “論佛骨表, ‘伏以佛者夷狄之一法耳。自後漢時流入中國，上古未嘗有’三句，皆爲綱，而自‘昔者黃帝’以下，至‘非因事佛而致然也’，爲一大節，承‘上古未嘗有’，而申說之者也，‘漢明帝時’以下，至‘傳笑四方，非細事’，爲一大節，申說‘後漢時，流入中國’也。‘夫佛本夷狄之一法’以下，爲一大節，應‘夷狄之一法’也。體段則如是，而命脈則實在於‘佛者夷狄之一法’耳。故古盛王之時，無佛而致壽康，漢明以後，事佛而致禍亂，在今日，亦爲可斥絕，而不可使爛漫耳。篇首則治以佛爲夷法，而次以後漢時入，次以上古未有，其下申說之者，則先以上古未有，次以漢時，次以佛本夷狄，此則撰製之至法也。”

위의 「논불골표」에 관한 비평을 보면, 안석경은 綱領과 脈絡을 우선 파악한 후 각 단락과 강령 및 맥락 사이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는 「논불골표」가 강령을 비롯하여 세 개의 大節과 여러 개의 小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대절과 소절은 각기 구조적 지배를 받는 강령이 있다고 하였다. 간혹 대절의 하부구조인 소절이 대절이 표방하는 綱領에서 벗어나 독자적 강령에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伏以佛者夷狄之一法耳。自後漢時流入中國，上古未嘗有’란 강령, 그 중에서도 글의 주제인 ‘伏以佛者夷狄之一法耳.’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고 하였다.⁸⁾ 그러므로 안석경의 분석에 의거하여 「논불골표」를 살펴보면, 이 작품은 불교가 夷狄의 法이란 주제를 표출하기 위해서 ‘불교는 처음부터 중국에 있던 것이 아니라 후한시대 때 처음 유입된 것’임을 다양한 논거를 통해 논증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논불골표」가 ‘伏以佛者夷狄之一法耳.’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거니와, 이하 서술도 上古 盛王之 시대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無用과 그것이 본래 중국에 있던 종교가 아님을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안석경의 비평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 편의 글이 짜임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각 단락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단락이 適材適所에 배치되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8) 安錫徽, 『雪橋藝學錄』人, 「韓文摘解」, “就‘上古未有’一節而詳之, 則‘黃帝’, 至‘中國未有佛也’, 爲小一節, ‘殷湯’, 至‘事佛而致然也’, 又爲小一節, 兩節只一意, 而前後結語參錯可法. 就‘漢明時’一節而詳之, 則自‘漢明’, 至‘佛不足事, 亦可知矣’, 爲一小節, 而實與‘上古未有’一大對舉, 而‘高祖始受’, 至‘臣常恨焉’, 爲一小節, 而‘始受隋禪, 則議除之云’者, 照‘上古未有’之節, ‘不能云’者, 照‘後漢時入’之節, ‘伏惟睿聖陛下’, 至‘非細事也’, 爲一小節, 而‘不許度人爲僧尼云’者, 照‘上古之未有’節, ‘迎佛骨云’者, 照‘後漢時入’之節, 蓋此等小節, 雖蒙‘後漢時流入’之節, 而於其中, 脈絡條理如此, 非化筆不能. 就‘佛本夷狄’一節而詳之, 則自‘佛本夷狄’, 至‘不令惑衆也’, 爲一小節, 辨破夷陋之爲可斥, 以明其鬼之不祥, 而適以致兇而起禍. 自‘其身’, 至‘臣實恥之’, 爲一小節, 而上應‘後漢時入’之條. ‘乞以此骨, 投水火’, 爲一小節, 而上應‘上古未有’之條.”

글을 구성하는 단락과 그 단락을 이루고 있는 문장이나 구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석경은 편장의 호응 관계 및 結構 방법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삼교예학록』에서 照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개별 단락이나 구절의 연계성을 밝힌 것이나, 總結, 收結處, 脉會, 結脈 등을 통해 서론과 결론의 호응 관계를 분석한 사례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그의 분석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崔嵬의 「山水屏序」를 두고, 그는 전체작품을 上段과 下段으로 구분하고 상단의 “吾愛觀乎此, 乃所以愛山水也”와 “有以見公所取者, 能初不以其人”의 두 구절을 글 전체의 命脈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下段을 내용상의 흐름에 따라 세 개의 節로 나누어, 첫 번째 절은 “吾愛觀乎此, 乃所以愛山水也”와 호응을 이루고, 두 번째 절은 “有以見公所取者, 能初不以其人”과 호응되며, 세 번째 절은 작품 전체의 명맥을 재차 환기시킴으로써 글을 맺는 “收結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⁹⁾

산문을 바라보는 그의 이러한 시각은 “모든 사물은 성장할 때부터 일정한 脈絡과 條理, 品節이 있다. 문장도 예외일 수 없다. 만일 문장에 脈絡이 없게 되면 흙으로 빚은 인형에 불과하며, 條理가 없으면 뒤엉킨 실과 같고, 品節이 없다면 케말된 군졸과 같다. 문장이란 脈絡이 유통하여 呼應이 상응하고, 條理가 분명하여 賓主에 어그러짐이 없으며, 品節이 엄정하여 往復에 어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무릇 여기에는 모두 지극한 법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다.”¹⁰⁾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안석

9) 安錫徹, 『雪橋藝學錄』人, 「簡易文抄」, “山水屏序, 標吾愛觀乎此, 乃所以愛山水也. 有以見公所取者, 能初不以其人, 爲其爲一篇命脉也. 以上二節爲上段, 屏有空焉以下, 至末爲下段. 而殊託而一致耳矣以上一節, 應乃所以愛山水一節, 而標又足以見公之愛是盡也. 自其山水之愛深且眞也, 噫邇逢至不能量矣一節, 應初不以其人一節, 而標將推夫愛山水取畫者之心而爲之, 則其事業之盛, 鄙人不能量矣. 且聞之孔子以下, 至末爲一節, 收結一篇之意也.”

10) 安錫徹, 『雪橋藝學錄』天, 「藝學錄自序」, “凡物之生, 莫不有脈絡, 凡物之成, 莫不有條理, 凡物之聚, 莫不有品節, 獨於文, 可以異乎哉. 無脈絡, 則土偶也,

경은 작가의 생각을 체현하는 흐름인 脈絡이 전편을 貫流하고, 중심 대상과 부차적 대상이 주제를 향해 條理 있게 배치되며, 작품의 모든 편장 자구가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을 엄밀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¹¹⁾

그의 분석 관점을 따르면 고문의 전범으로 간주되던 작품도 “「愚溪詩序」이다. 첫 부분부터 ‘謂之染溪’까지의 한 節은 ‘溪事’를 말한 것이고, ‘余以愚觸罪’부터 ‘咸以愚辱焉’까지의 한 節은 ‘愚’로써 시내의 이름을 붙인 일을 말한 것이다. ‘夫水, 智者樂’부터 ‘余得專而名焉’까지 한 節은 사람과 시내의 어리석음에 대해 재차 말한 것이고, ‘溪雖莫利於世’부터 ‘無所避之’까지는 뒤집어서 사람과 시내의 장점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以愚辭歌愚溪’이하의 한 節은 앞의 서술을 모아서 맺는 것이다. 다만 앞 단락에서 이미 ‘皆山水之奇者’와 ‘以余故, 咸以愚辱焉’라고 말하고서 아래 단락에서 이에 ‘無以利世, 而適類於余, 然則雖辱而愚之可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하가 어긋난 것이니 흠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¹²⁾와 같이 편장 호응 관계에 기반을 두고 글의 功過를 따져보는 식의 비평을 개진할 수 있다.

그는 단락을 구성하는 각 구절들이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배치가 아니라 내용이나 형식상에 다채로운 변화를 주어서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에도 주목하였다. 그가 錯綜, 操縱(擒縱), 斷續, 開

無條理, 則亂絲也, 無品節, 則潰甲敗轍也. 脈絡流通, 而呼吸相應, 條理分明, 而賓主不錯, 品節嚴整, 而往復無差, 凡此皆有至法, 不可忽也.”

- 11) 정우봉, 「『삼교예학록』의 산문수사학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pp.59-86.;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문장관과 비평의 실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pp.493-516.
- 12) 安錫徹, 『雪橋藝學錄』 人, 「柳文摘解」, “愚溪詩序, 自首, 至‘謂之染溪’一節, 言溪事. 自‘余以愚觸罪’, 至‘咸以愚辱焉’一節, 言以愚名溪事. 自‘夫水, 智者樂’, 至‘余得專而名焉’一節, 申說人與溪之愚也. 自‘溪雖莫利於世’, 至‘無所避之’, 翻說人與溪之有長也. ‘以愚辭歌愚溪’以下一節, 摠而結之也. 顧上段既曰: ‘皆山水之奇者’, ‘以余故, 咸以愚辱焉’, 下段乃曰: ‘無以利世, 而適類於余, 然則雖辱而愚之可也.’ 此其上下抵牾, 不免爲疵.”

闡 등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상기 비평 용어의 함의를 보면, 錯綜은 언어의 배열 순서를 작가가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뒤섞는 것으로 相值가 가능한 어휘의 반복적인 구사나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것, 문장을 때론 길게 때론 짧게 구사하는 것, 문장형식의 변화를 주는 것 등을 말한다.¹³⁾ 그리고 操縱은 앞에서 한 번 풀어준 것을 뒤에서 다시 거두어들임으로써 글의 긴장감을 돋우는 방식이고,¹⁴⁾ 斷續은 연결되지 않는 여러 사실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다가 뒤에 가서 이들 전체를 꿰뚫는 심상이나 사상을 진술하여 전체를 잇는 방식이다.¹⁵⁾ 마지막의 開闡은 앞에서 주제와 무관한 듯한 다른 말을 서술한 다음, 뒤에서 주제에 관해 말함으로써 앞서 열어두었던 것은 뒤에서 다시 거두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이들은 주제 제시 방법 및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편장 운용의 구체적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韓愈의 「與孟簡尚書書」에 대한 그의 비평을 예로 들면, “앞 大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孟子云今天下’부터 ‘辭而闡之廓如’까지가 한 절이 되며, ‘然向無孟氏’부터 ‘不在禹下爲此’까지가 한 절이 되는데, 開闡과 操縱으로 문장의 변화를 지극히 하였다.”¹⁷⁾와 같은 방식이다.

편장 구성을 중시한 그의 비평 관점은 字句運用에 관한 비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간엄한 문체를 요구한다. 이는 ‘辭達’이란 말도 있듯이 가능한 경제적인 언어로 풍부한 뜻을 담아내는 것이 고문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문인들은 간엄한 자구운용을 위해 虛辭와 같이 문법적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자구를

13) 陳望道, 『修辭學發凡』, 上海世紀出版集團, 2006, pp.203-211.

14) 王洪 主編, 『古代散文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7, p.763.

15) 강민구, 「영조대 문학과 비평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239-241.;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p.105.

16) 王洪 主編, 위의 책, p.751.

17) 安錫徹, 『雪橋藝學錄』 人, 「韓文摘解」, “就上大節而詳之, 則自‘孟子云今天下’, 至‘辭而闡之廓如’, 爲一節, ‘然向無孟氏’, 至‘不在禹下爲此’, 爲一節, 開闡操縱, 極其變化.”

생략하거나 생소한 전고를 사용하여 축약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석경은 글을 지을 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되, 문장의 간결함은 자구 몇 개를 加減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편장의 효과적인 구성을 통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자연스런 자구의 간결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¹⁸⁾ 그의 ‘옛 사람들이 左氏에게 배우려 했던 것은 대부분 자구의 簡嚴함이 편장의 簡嚴함이 이와 같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언급 속에서 자구의 간결함은 편장 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예컨대, “僖公 4년에 齊侯가 제후의 군사를 거느렸다”는 장이다. (중략) 管仲의 말에서 ‘五侯와 九伯을 정벌하여 주나라 황실을 보좌하라’는 召康公의 명령을 먼저 서술하여 죄를 묻는 말 앞에 두었으니, 이는 辭令의 簡嚴한 문체이다. 만일 소강공의 명령을 먼저 서술하지 않고 초나라의 죄를 먼저 물었다면, 초나라는 반드시 ‘공문을 바치지 않은 것은 초나라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나라 군주께서는 무슨 상관이십니까?’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소강공의 보필하라는 명령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데, 결국 사령이 길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소강공의 명령을 먼저하고, 죄를 묻는 말을 다음에 놓음으로써 초나라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할 수 없게 하였다.”²⁰⁾와

18) 무분별한 자구 생략의 폐단에 관한 안석경의 인식은 사마천과 반고에 대한 그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安錫徽, 『雪橋藝學錄』天, 「漢書摘解」, “班氏增減遷史, 多失之迫窄, 如楚戰士無不一以當十, 楚兵呼聲動天, 諸侯軍無不人人惴恐. 於是已破秦軍, 項羽召見諸侯將, 入轅門, 無不膝行而前, 莫敢仰視. 三用無不字, 雖似冗疊. 然不得不皆用, 班氏去其二而存其一. 又曰: 一當十而無以字, 呼聲之上, 又去楚兵字, 皆恨迫窄不能恢偉. … 班氏不知變化, 故如此耳.”)

19) 安錫徽, 『雪橋藝學錄』天, 「左傳摘解」, “古人之學左氏者, 多法其句字之簡, 而不聞其簡於篇章如此.”

20) 安錫徽, 『雪橋藝學錄』天, 「左傳摘解」, “僖公四年, 齊侯以諸侯之師章, … 管仲之言, 先以召康公命, 以征五侯九伯以輔周室者, 首之於問罪之辭, 乃辭令簡嚴之體也. 若不先以此命而先問楚罪, 則楚必答曰: 貢之不入, 楚之罪也, 抑齊君何預者乎. 則必更以召公夾輔之命應之, 而辭令遂繁絮矣. 故先之以召公之命, 而次之問罪之辭, 使楚人更不能爲辭.”

방식인데, 이는 창작단계에서 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향후 자구운용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무분별하게 자구를 줄일 것이 아니라 편장을 구성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편장 구성 중심의 자구운용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교예학록』에 수록되어 있는 안석경의 산문 비평은 글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락 구성의 방법, 즉 편장 구성의 일관성과 연계성, 그리고 엄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독서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파악과 소재 선정’, ‘문단 및 단락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과거 문인들의 비평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다.

Ⅲ. 散文 教育으로의 活用 可能性

1. 한문 산문 교육으로의 활용 가능성

글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락 구성 방법을 탐색한 안석경의 비평은 고전 산문 작품을 학습하고 감상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주제가 담긴 문장을 중심으로 다른 문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주제와 맥락을 찾는 것은 산문 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한문 산문 작품을 강독할 때 하나의 작품을 처음부터 무의미하게 읽고 풀이해 주는 것보다, 먼저 작품 전체를 풀이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담고 있는 문장은 어떤 것인지 찾게 하거나 주제문을 중심으로 앞 뒤 문장의 서술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형태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는 것도 산문 교육에서 글의 주제 및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케 한다.

楚人有涉江者，其劍自舟中墜於水，遽契其舟，曰：“是吾劍之
 所從墜。”舟止，從其所契者，入水求之。舟已行矣，而劍不行。
 * 楚(초): 나라 이름 * 墜(추): 떨어지다 * 遽(거): 갑자기
 - 『여씨춘추』 -

21.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求劍若此，不亦惑乎？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

현재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 수업의 수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교육과정에 산문 교육과 관련하여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 파악을 주요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안석경의 비평 방식이 오늘날 한문 산문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학교에 이 내용이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 학교급이 하위 학교급의 성취기준을 포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역시 글의 중심 내용과 지은이의 의도 파악을 전제하고 있다.²¹⁾

21) 교육과학기술부,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7], 2011.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 ‘독해-이해’ 영역의 산문 교육 관련 내용>

중학교 한문	고등학교 한문 I	고등학교 한문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지은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글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경정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주장의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사건이나 인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지은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실용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의 글을 읽고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사리를 밝히거나 시비를 가리는 글을 읽고 지은이의 창작 의도를 평가할 수 있다. ·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글을 읽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글을 읽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 실용문을 읽고 문체의 특징을 글의 목적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 서사적인 글을 읽고 말하는 이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란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급별 수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문 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내용도 모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에 제시된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란 성취기준을 해설한 내용을 보면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

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시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주제가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거나, 글의 제목, 핵심어, 지은이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같이 안석경의 분석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²²⁾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문 교과서의 수업 시수와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고려할 때, 편장 구성 분석을 통해 주제와 맥락을 찾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기란 쉽지 않다. 편장 구성을 분석하여 주제와 맥락을 찾으려면 우선 교과서에 작품의 全文이 수록되어야 하고 하나의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석경의 비평 방식은 심화 과목인 고등학교 한문Ⅱ(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나 대학에서 한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문 교육 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1 가)天下之事, 不以貴賤貧富, 爲之高下者, 惟文章耳. ④盖文章之作, 如日月之麗天也, 雲烟聚散於大虛也, 有目者, 無不得覩, 不可以掩蔽. ⑤是以布葛之士, 有足以垂光虹霓, 而趙孟之貴, 其勢豈不足以富國豐家, 至於文章, 則蔑稱焉. 由是言之, 文章自有一定之價, 富不爲之減. 故歐陽永叔云: ‘後世苟不公, 至今無聖賢.’

2 ①僕陽世材才士也. ②累舉不得第, ③忽病目作詩, ‘老與病相隨, 窮年一布衣.’

22) 교육부,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2015.

玄華多掩映, 紫石少光輝. 怯照燈前字, 羞看雪後暉. 待看金榜罷, 閉目坐忘機.’ ㉔
 三娶輒棄去, 無兒息托錐之地, 簞瓢不繼. ㉕年至五十, 得一第, ㉖客有東都以歿,
 ㉗至其文章, 豈以窮蹟而廢之?

위 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한문Ⅱ 교과서에 수록된 『破閑集』의 일부이다.²³⁾ 이 글을 안석경의 비평 방법을 차용하여 분석해 보면, 내용 상 1과 2로 단락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주제는 가)의 ‘天下之事, 不以貴賤貧富, 爲之高下者, 惟文章耳.’이며, ㉔와 ㉖는 주제문인 가)를 부연 설명하는 문장으로, ㉔는 ‘文章’의 속성에 주목한 것이고 ㉖는 실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文章自有一定之價, 富不爲之減.’은 주제인 가)와 호응하여 단락 1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2는 작자인 李仁老가 吳世才에 대해 품평한 부분인데, 1에서 언급한 주제를 오세재란 인물에 대입하여 그가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뛰어난 글은 후세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2 단락에서는 抑揚法(揚: ㉑, ㉒, ㉓, ㉔; 抑: ㉕, ㉖, ㉗)을 사용하여 짧은 편폭 속에서 오세재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안석경의 비평 방식을 현대 산문 교육에 활용할 경우 자구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작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와 지은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이 경우 독해력 증진을 통한 한문 능력 신장이란 일차적 목표를 넘어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둔 진정한 ‘문학 교육’으로서의 산문 교육도 기대할 수 있다.

2. 글쓰기 교육으로의 활용 가능성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23)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Ⅱ』, 천재교육, 2014, pp.196-197.

그들에게 알맞은 단어, 문장, 표현법 등을 선택하여 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특히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짜임새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가 분명하고 논리적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²⁴⁾ 좋은 글을 쓰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 하고, 그 주제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담아야 하며, 적절한 어휘와 문장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된 사실과 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²⁵⁾ 오늘날 글쓰기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좋은 글쓰기의 요건이다. 글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락 구성의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안석경의 산문 분석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떠한 종류의 글을 쓰는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응집성 있게 글을 써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안석경이 추구한 편장 구성의 일관성과 연계성, 그리고 엄정성은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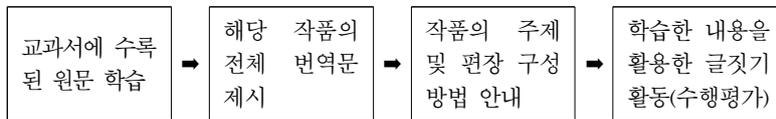
24)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25)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특강』, 생각의길, 2015, pp.74-75.

26) 오늘날의 글쓰기에 전통적 글쓰기 방식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그간 많았으며, 그 성과 또한 풍부한 편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주요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연수, 「논술 교육을 시도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김철범, 「한문 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2005.; 박수필, 「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배수찬, 「한문 글쓰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연구」,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2005.; 송병렬, 「한문산문의 서술방식과 수사법에 대한 교육적 활용 연구」,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심경호,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5, 한국작문학회, 2007.; 안세현, 「한문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자천서·자전류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2014.;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한문교육연구』 43,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그러면 안석경의 분석 방법을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문인들이 추구했던 전통적 글쓰기 방법은 이론적 측면에 봤을 때 오늘날의 글쓰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글쓰기가 추구하는 정신과 지향점이 동일하다고 해도 전통적인 글쓰기와 오늘날의 글쓰기는 표현하는 언어체계가 상이하므로 표현 방식이나 세부 논리 구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글쓰기 교육을 할 때 한문 산문의 원문을 대상으로 글쓰기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글쓰기 방법만을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나와 있는 현대의 글쓰기 관련 이론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 글쓰기 방식을 오늘날의 글쓰기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역대로 전범적 산문이라고 평가되는 작품의 번역문을 통해 편장 구성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문 산문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제와 글쓰기 방식이 담겨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만일 중·고등학교 한문과 수업에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업 전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교과서에 李穡의 「南陽府望海樓記」 일부가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의 원문을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원문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南陽府望海樓記」 전체의 번역문을 제시하고, 이 작품의 주제와 편장 구성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번역문】

1 남양부(南陽府)는 삼국 시대에는 당성(唐城)이라고 이름하였다. 본조(本朝 고려)에 들어와서 중세 이후로는 익주(益州)로 되었다. 이 고을의 홍씨(洪氏)는 태조가 처음 일어날 때부터 익대공(翼戴功)이 있었으니, 휘(諱)가 은열(殷悅)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대대로 거족을 이루었으니, 강도(江都)의 말기에 이르러 남양군(南陽君)이 권신을 빼어 죽이고, 정권을 왕실로 도로 돌렸으며 문예부주(文睿府主)를 낳아 양조(兩朝)의 태후가 되었으므로 이 고을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대개 산천의 신령하고도 뛰어난 정기가 뭉쳐서 아름다운 상서를 낳아, 억만년 영원히 끝이 없는 왕업의 기초를 이루었으니, 진실로 다른 군현(郡縣)과 똑같이 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곳의 수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반드시 신중하게 뽑아 임명한다.

2 해정어수(海亭漁叟)라고 하는 정후(鄭侯)가 부임하여 말하기를, “태양에는 나오고 들어감이 있고, 물에는 원류와 끝이 있다. 비록 멀고 큰 것일지라도 탐구의 방법을 잘하는 자는 다 알 수 있다. 더구나 군왕이 출생한 근본인 곳임에라. 신하된 자는 진실로 마땅히 삼가 공경하여 감히 소홀하게 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나는 영광스럽게 임금의 은택 있는 말씀을 받아 군왕이 출생한 땅의 수령이 되었다.” 하고, 이 때문에 밤낮으로 오직 삼가고 공경하고 우선 덕(德)으로써 힘을 썼다. 아전들을 교화하는 데 감히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백성을 은혜롭게 대하여 감히 위압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지 1년이 되어 고을 안이 매우 평화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해로운 것은 모두 없어졌다.

3 이에 누대를 고을의 치소에 세워 보는 것을 장대하게 하고 빈객과 사신들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 이름을 ‘망해루(望海樓)’라고 붙이였다. 그의 아들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인 정이(鄭彞)를 시켜, 나의 글을 받아서 기문으로 삼았다. 이 고을에 옛날에는 못이 있었는데, 오래도록 폐지하고 수리하지 않아 위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아래에는 앙금이 쌓이니, 그곳 사람들이 이 그 안에서 함부로 경작하게 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

를, ‘못에 살던 용(龍)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로 못이 말라버렸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정후(鄭侯)가 부임하여 못을 파내고 수축하게 하였더니, 이날 검은 구름이 갑자기 동남쪽에서 일어나고 바람과 우레가 따라왔다. 고을 사람들이 바라보니 높이 드러난 용의 꼬리가 못에 내려왔다. 못의 물이 사흘 동안 끓어오르고 흰 기운이 뭉게뭉게 일어나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4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의 작용은 위대한 것이다. 마음을 한번 정하면 온 천하에 족히 못할 것이 없다. ㉡정후(鄭侯)의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환하게 띄어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데에서는 인화(人和)를 가져오고, ㉣그윽한 곳에서는 영물(靈物)을 오게 한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이 누(樓)를 창건한 것은 작은 일이니 무엇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고을의 고사(故事)를 적고, 뒤에는 용이 돌아온 유래를 기록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정후의 이름은 을경(乙卿)이고, 자(字)는 선보(善輔)이다. 국가의 기둥이 될 만한 재목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작품 해설】

이 작품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1**은 南陽府의 연혁 서술이고, **2**는 望海樓를 창건한 鄭乙卿의 인품과 치적을 밝혔으며, **3**은 누각의 命名 경위와 용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였고, **4**는 작가의 의론을 기술하였다. 이 작품에서 주목한 것은 결말의 구성방식이다.²⁷⁾ 즉, 마지막 단락인 **4**의 구성을 보면 ㉠은 작가가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주제로서, 전편의 편장도 대체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운용·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이하의 문장은 모두 **1**, **2**, **3**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우선 ㉡은 **2**에 서술된 정을경의 인품과 호응하고, ㉢은 **2**에 기술되어 있는 정을경의 치적 기술에 호응한다. 또한 ㉣은 **3**에서 말한 용이 다른 경내로 옮겨갔다가 다시 남양부로 돌아오게 된 일화와 호응하고, ㉤은 **3**에서 누각 命名 경위를 간략히 서술한 것에 대한 부연이다. 마지막으로 ㉥은 앞 단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마지막 단락의 서술이 앞 단락과 치밀하게 연계되면서도 작가의 주제의식이 투영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작품을 다시금 곱씹게 하는 것이다.²⁸⁾

이상과 같이 전체 작품의 번역문 제시와 편장 구성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해당 산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글쓰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경우 결말 구성 방식에 특징이 있으므로, 미괄식의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글을 짓되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이전 단락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는 글을 지어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산문 작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로서 實用文의 하나인 記文을 제시해 보았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수업은 論, 辨, 說, 原 등의 說理文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 보다 효과적이다. 논리적 글쓰기 교육에 적합한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한문 산문의 편장 분석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은 한문이 단순히 옛글을 읽고 풀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술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 경우 논술 교육에 적합한 한문 고전 작품을 찾고 그 속에서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IV. 結論

본고는 안석경이 남긴 여러 성과들 가운데 『삼교예학록』 소재 산문 비평에 주목하여 비평의 특징과 산문 교육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삼교예학록』에 수록되어 있는 안석경의 산문 비평은 글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락 구성의 방법, 즉 편장 구성의 일관성과 연계성, 엄정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 방식은 자구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작

27) 安錫徹, 『雪橋藝學錄』 人, 「牧隱文抄」, “南陽府望海樓記, 評未有巨鯨掉尾之勢. 蓋‘予曰: 心之用大矣’以下, 結一篇之意, 而有神力故也.”

28) 해당 분석은 윤지훈, 「18세기 농암계 문인들의 문학론과 비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33-134.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작품의 주제와 지은이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효과적이란 점에서 한문 산문 교육뿐 아니라 글쓰기 교육에서도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한문 산문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이 오늘날의 글쓰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사성이 짙은 글을 쓸 때 司馬遷이 『史記』에서 사용한 다양한 글쓰기 방식, 이를 테면 伏線의 적절한 활용, 장면 중심의 서사구조, 敍事와 議論의 조화로운 서술 등을 활용해 본다면 글쓰기 능력의 신장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고대사에 대한 이해 확대 및 고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언급하진 않았으나 안석경이 『삼교예학록』에서 보여준 錯綜을 통한 자구의 운용 방법, 抑揚法 및 主客法 등의 수사법도 현대 글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문 산문이 文·史·哲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한문 산문을 이용한 글쓰기 교육은 최근 교육계에 화두로 떠오른 통합적 사고 능력 배양에도 적합할 것이다.

<參考 文獻>

安錫徹, 『雪橋集』, 아세아문화사.

교육과학기술부,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7], 2011.

교육부,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7], 2015.

안대회 외, 『고등학교 한문Ⅱ』, 천재교육, 2014.

강민구, 「영조대 문학론과 비평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연수, 「논술 교육을 시도한 고등학교 한문 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 『한문 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2005.
- 박수밀, 「한문산문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 고찰」, 『온지논총』 22, 온지학회, 2009.
- 배수찬, 「한문 글쓰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연구」, 『작문연구』 1, 한국작문학회, 2005.
- 송병렬, 「한문산문의 서술방식과 수사법에 대한 교육적 활용 연구」,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 ,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5, 한국작문학회, 2007.
- 안세현, 「글쓰기 교육으로서의 한문 교육의 효용성과 교육 방안」, 『한문교육연구』 43, 한국한문교육학회, 2014.
- , 「한문산문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자천서·자전류 산문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2014.
- 유시민, 『유시민의 글쓰기특강』, 생각의길, 2015.
- 윤지훈, 「회와 안중권의 문학론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15, 우리한문학회, 2006.
- , 「삼교 안석경의 문장관과 비평의 실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 「18세기 농암계 문인들의 문학론과 비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 「삼교예학록을 통해 본 안석경의 산문비평과 고문작법」,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 이명학, 「삼교만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정우봉, 「『삼교예학록』의 산문수사학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王洪 主編, 『古代散文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7.
- 陳望道, 『修辭學發凡』, 上海世紀出版集團, 200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Abstract

An Seok-gyeong's Prose Criticism and its Educational Value on Writing Prose
/ Yoon Ji Hun*

『Sapgyo-yehakrok』 is one of An's brilliant works, where his criticising prose is remarkable in that it could be thought that what he says about prose helps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write better.

In 『Sapgyo-yehakrok』, he referred to the coherence of subject, the connection between sentences, and the well-knit structure, encouraging readers to get to the core of writings, as the points of prose criticism. Therefore, his way to criticise prose is effective on grasping the heart out and appreciating the works when reading, putting importance on understanding what a writer wants to say through the whole one rather than interpreting individual words, which is related to all kinds of writings as well as prose.

【Key words】 An Seok-gyeong, Prose Criticism, Education Of Prose,
『Sapgyo-yehakrok』, Education Of Writing

투고일 : 11월 5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er / singlesw@kice.re.kr